

화엄사 대웅전 비로자나삼신불회도(보물). 지난 6월 국보로 지정된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의 후불탱 세 폭으로 구성됐다. 사진 왼쪽부터 비로자나불회도, 노사나불회도, 석가불회도.

국보 · 보물 화엄사 성보들 '서울 나들이'

불교중앙博 교구본사 특별전 '화장 지리산 대화엄사' 개최

올해 국보 지정 삼신불좌상 복장물
보물 비로자나삼신불회도 '첫 공개'
화엄경을 돌에 새긴 '화엄석경' 눈길
근현대 화엄사 선지식 유품도 선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국보 화엄사 대웅전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중 노사나불의 복장물. 이번 전시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처음으로 공개된다.



화엄사 '화엄석경'의 모습. 1만 4000여 편으로 이뤄져 있으며. 화엄사가 오래전부터 화엄사상을 선양하고 있었음 알 수 있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덕문)는 화엄종주 의상 스님이 화엄사상을 전파한 '화엄십찰' 중 하나다. 고려시대에는 부석사와 더불어 화엄종을 대표하는 사찰이었지만, 조선시대 이후 숭유억불 정책으로 쇠락의 길을 걷다가 임진왜란, 정유재란으로 폐허가 되는 아픔을 겪었다.

화엄사가 현재의 사격을 다시 되살린 것은 1630년경 대웅전 복원 불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다. 당시 불사의 중심에는 벽암 각성(1575~1660) 스님이 있었다. 스님은 대웅전 중건, 괘불 봉안,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조성 등에 참여하며 화엄사의 재건을 이끌었다.

양란 이후 어려웠던 시절임에도 대규모 불사가 가능했던 것은 당시 조선 왕실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벽암 각성 스님과 친분이 두터웠던 동양위 신익성과 의창군 이광이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의 대시주로 참여했다. 기록에 따르면 왕실 인물과 승려 580명 등 총 1320명이 시주자로 참여했다. 각황전 중건 불사에는 숙빈 최씨와 연잉군(훗날 영조)이 대시주로 이름을 올렸다.

왕실이 후원한 불사였던 만큼 화엄사의 주요 성보문화재들은 당대 최고 수준의 작품성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것이 올해 국보로 지정된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이다. 삼신불은 법신(法身) 비로자나불(毘盧舍那佛), 보신(報身) 노사나불(盧舍那佛), 화신(化身) 석가불(釋迦佛)을 의미하며 화엄사상에 근원을 둔 도상이다. 변상도나 사경 등에는 종종 보이지만, 조각상으로는 화엄사 사례가 유일하다. 17세기 불교사상과 미술사의 중요한 사례로 평가되는 삼신불좌상은 지난 2008년 보물로 지정됐으며, 올해 6월 국보로 승격됐다.

삼신불좌상의 후불탱인 비로자나삼신불회도는 18세기 삼신불도의 전형을 보여주는 성보문화재로 각각 비로자나불회도 · 노사나불회도 · 석가모니불회도로 구성됐다. 지난 2003년 보물로 지정됐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탄탄)이 9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개최하는 교구본사 특별전 '화장(華藏) 지리산 대화엄사'는 17~18세기 조선시대 불교미술의 정수가 담겨있는 화엄사의 성보문화재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다.

특히 지난 6월 국보로 승격된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의 복장유물과 보물로 지정된 화엄사 비로자나삼신불회도는 대중에게 처음으로 그 모습을 선보이기에 눈길을 끈다.

세 폭으로 구성된 화엄사 비로자나삼신불회도는 3회로 나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로비에서 대중들에게 공개된다. 공개 일정은 비로자나불회도는 9월 14일부터 10월 3일까지, 노사나불회도는 10월 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석가불회도는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다.

삼신불회도의 친견은 코로나19로 인해 예약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친견은 매일 오전 10시 30분, 매회 20명으로 제한해 운영된다. 사전 예약은 박물관 홈페이지와 전화로 가능하다.

'화엄십찰'로서 화엄사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성보들도 눈길을 끈다. 1만4000여 점이 넘는 조각편으로 전해오고 있는 〈화엄석경(보물)〉은 화엄사가 오래전부터 화엄사상을 선양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보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우리나라에서 경전을 돌에 새긴 사례는 경주 창림사지와 칠불암, 서울 영국사지에만 전할 만큼 매우 귀중하다"면서 "법보로서 불전을 장엄하고자 조성된 '화엄석경'은 〈화엄경〉을 돌에 새긴 현전하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와 화엄사의 사격(寺格)을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화엄사 불전에 공양구로 사용됐던 우리나라 대표적인 도자기인 '백자홍치2년명송죽문항아리(국보)'를 만날 수 있으며, 태안사에 전해오고 있는 '대바라(보물)'를 통해 조선시대 불교의식의 장엄함도 상상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근현대 화엄사 중흥조로 평가받는 도광 스님과 도천 스님의 수행, 교화 원력을 느낄 수 있는 유물들도 전시된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이번 특별전은 우리나라 화엄 사상의 원류와 전승을 조망하는 특색있는 전시회가 될 것"이라며 "지리산 권역 화엄사 말사의 아름다운 불교미술을 소개하며 화려하게 펼쳐졌던 전남의 불교문화의 일면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11회 반야학술상 김종명 前교수 선정

11월 7일 통도사 반야암서 시상



불교학 연구업적이 뛰어난 중견급 연구자들을 시상하는 제11회 반야학술상에 김종명 前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사진〉가 선정됐다.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은 "제11회 반야학술상 수상자로 김종명 前 교수를 선정했다"고 9월 6일 밝혔다.

김 前 교수는 서울대에서 유가공학을 전공으로 학사 ·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UCLA에서 한국불교학 전공으로 석사 ·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불교의례를 비롯한 불교문화, 불교와 국가 및 선사상 중심의 한국 불교학과 해외 인문한국학을 연구해 왔다. 청호불교복지대상(학술부문)과 불이상(학술부문)을 수상했으며,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 후 인 더 월드〉에 세계 지성 3% 및 평생 공로 회원으로 등재됐다.

학술상의 상금은 1000만 원이며, 시상식은 오는 11월 7일 오후 1시 통도사 반야암에서 열린다.

신성민 기자

한국학으로서 불교학 지형 · 방법을 논하다

동국대 세불연, 18일 학술대회

국학과 한국학으로서 불교학의 지형과 방법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소장 고영섭)는 오는 9월 18일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국학과 한국학으로서 불교학의 지형과 방법'을 주제로 제20차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에서는 김원명 한국외대 철학과 교수가 '분황 원효 사상의 고유성과 독특성'을,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가 '보조 지눌의 사상의 고유성과 독특성'을, 조경철 연세대 사학과 초빙교수가 '인각 일연의 사상과 고유성과 독특성'을 발표한다.

또한, 오용석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가 '청허 휴정 사상의 고유성과 독특성'을, 봉선사 능엄학림 상묵 스님이 '탄허 택성 사상의 고유성과 독특성'을 각각 발표한다.

논평자로는 청동 스님(한마음선원), 김영미 동국대 파라미타칼리지 교수, 김방룡 충남대 철학과 교수, 명계환 동국대 불교학과 외래교수, 최용운 서강대 교양연구원 초빙교수가 참여한다.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는 "학술대회를 통해 원효, 지눌, 일연, 휴정, 탄허 사상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종합성과 고유성, 독특성의 측면에서 규명해보려 한다. 이는 국학과 한국학으로서 불교학의 지형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작업"이라며 "불자와 학자들의 깊은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